

광주지하철 1호선 2구간(상무역~평동역) 미리 타보니

“여기는 송정리역, 기차 타실 분 내리세요”

“이 열차는 평동행 열차입니다” 광주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낯선 역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상무역에 멈춰있던 출입문 상단 노선 안내도에도 새로 추가된 6개 역까지 운행구간을 알리는 붉은 표시들이 켜져 있었다.

2구간에 새로 투입된 국산 전동차(40량)는 쾌적하고 안전해보였다. 보잉747 비행기처럼 불이 나도 발화되지 않고 자연 진화되는 불연 내장재를 사용하고 의자 역시 방염처리됐다. 출입문 위쪽에 있어 키가 작은 사람이 이용하기에 불편했던 비상 개방장치도 손잡이 높이로 이동시켰다. 승강장을 감시하는 화상진송설비와 화재 등 유사시에 종합관제실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비상인턴폰, 화재 감지기 등도 대폭 보강됐다.

출입문이 닫히면서 전동차는 상무역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오는 11일 개통을 앞둔 광주 지하철 1호선 2구간(상무역~옥동차량기지, 8.14km) 시승행사가 1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 출입기자단과 광주시·광주도시철도공사 직원 등 40여명이 상무역을 출발해 송정리역에 잠시 들린 뒤 종점인 평동역까지 갔다 상무역으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전 11시20분께 상무역을 미끄러지듯 출발한 전동차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역과 공항역, 송정공원역을 거쳐 10분 만에 송정리역에 도착했다. 1호선 가운데 가장 긴 김대중컨벤션센터~공항 구간(2.7km)은 최고의 난공사로 꼽혔던 390m짜리 하저터널(황룡강을 지하 30m에서 가로지르는 공사)을 통과했지만 강바닥이라는 사실을 느끼기는 어려웠다.

참가자들은 지하철 송정리역과 국철 송정리역을 잇는 연결통로를 살펴보기 위해 잠시 하차했다. 오행면 광주도시철



오는 11일 개통 예정인 광주 지하철 2구간 중 지하에서 지상으로 빠져나오는 도산역~평동역 구간을 새로 투입된 국산 전동차가 1일 시승 참가자들을 태운 채 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6개역 모두 스크린도어 설치 안전성 높여
황룡강 하저 터널 통과...소음 보완 지적도

도공사 사장은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철도와 지하철 대합실을 바로 연결시켰다”며 “환승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표소에 는 장애인과 노약자, 국가유공자의 신분증을 인식하는 우대권·할인권 자동발매기가 설치돼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2구간 모든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였다. 기존 1구간의 14개 역 중에는 금남로 4가역과 문화전당역 등 2곳에만 있었던 스크린도어를 모든 역

으로 확대, 안전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거리도 좁혀 안전사고 위험을 줄였다.

송정리역을 다시 출발한 전동차는 도산역을 거쳐 지상으로 빠져나왔다. 평동산단을 지나면서 파란 지붕의 공장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고 기아차 출하사무소에는 수만대의 차량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연채광형으로 지어진 유일한 지상역인 평동역은 웅장한 규모가 인상적이었다.

시승 참가자 대부분이 역과 전동차의

밝은 분위기와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등에 만족감을 표했다. 하지만 한 참가자는 “전동차가 달릴 때 소음이 생각보다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동차가 출발하거나 정지할 때 흔들림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1구간 종착역인 상무역에서 평동역까지 소요시간은 13분. 2구간 운행으로 1호선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되면 33분이 걸려 시내버스(80분)보다 47분이 단축된다. 그동안 반쪽 운행에 그쳤던 지하철이 광주의 동서축을 이으며 완전한 지하철시대 개막되는 것이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1호선이 완전 개통되면 이용객이 하루 4만명에서 6만~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2014년 세계 수소에너지대회

국내 개최지 광주 확정

6월 호주대회서 한국 유치 총력

광주시가 2014년 제20회 세계 수소에너지대회(WHEC, World Hydrogen Energy Conference)의 국내 개최도시로 확정됐다.

광주시와 광주관광컨벤션뷰로는 1일 사단법인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학회가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이사회를 열고 제20회 세계 수소에너지 대회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국내 개최도시로 광주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광주와 서울, 대전, 대구, 제주 등이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유치 경쟁을 벌였다.

광주가 국내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시와 컨벤션뷰로는 한국 수소화와 공동으로 오는 6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제17회 세계 수소에너지대회에 참가해 제20회 대회의

유치를 희망하는 외국 신청 도시들과 최종 유치경쟁을 벌이게 된다.

세계 수소에너지대회는 지난 1976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어온 수소에너지 및 신에너지 관련 학술대회로 참가하는 외국 학자들만 1천500명에 이른다.

수소에너지는 세계적으로 석유자원이 점차 고갈되면서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신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4대 주력산업 중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광주시가 오는 5월 말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성공하고, 6월에 세계수소에너지대회까지 유치할 경우 미래 에너지를 주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국제회의도시로도 급성장할 전망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북구 민원 47종 ‘처리기간 단축서비스’ 확대

광주시 북구는 1일부터 자동차세 부과 세 신청과 관광사업등록 신청 등 47종의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 단축서비스’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법정처리기간보다 실제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이 서비스를 도입

한 북구는 278종의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해 민원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법정처리일수 20일인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는 5일로 단축됐으며,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자동차세 부과세신청과 관광사업등록신청 민원은 2일과 3일로 각각 단축됐다. /이종행기자 golee@

남구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주민청구제’ 시행

광주시 남구는 이일부터 주민 누구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 신청을 할 수 있는 ‘안전점검 주민청구제’를 시행한다.

‘안전점검 주민청구제’란 건축 등 관련 법으로부터 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점검을 요청하면 현지 조사를 통

해 시설물의 결함 원인을 찾아 위험을 없애주는 재난 예방 서비스다.

청구 대상은 주택, 축대, 옹벽, 절개지 등 방치돼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로 남구청 재난상황실과 주민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500부터 (4,7,9,11월만 판매) 063-228-8000

장수온돌침대 147,500부터 1,475,000까지. 하이파 한방온카구. 063-252-3001~2

모디쉬갤러리 4인식탁 ₩690,000. 063-252-3001~2